

# 윤도현, '6경기' 만에 존재감 과시...스타 탄생 기대

### 지난달 삼성전서 첫 경기...3경기 연속 멀티히트에 흥분도 부상 관리 숙제 속 내년 1군서 더 과감한 플레이 보여주고 싶어



윤도현(사진)에게는 6 경기만 출전했다. KIA 타이거즈는 9월 17일 일찌감치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순위 싸움은 끝났지만 시즌 마지막 관공석 열기는 더 뜨거웠다.

팬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선수 중 한 명이 윤도현이었다. 윤도현은 '40-40' 도전을 이어가고 있던 '친구' 김도영과 나란히 1·2번에 배치돼 뜨거운 6 경기를 소화했다.

윤도현은 매서운 방망이로 '특급 유망주'로 주목 받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올해도 스프링캠프 스타로 등극했지만 복사근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고, 1군 콜업을 앞두고는 중수골 골절 부상을 당했다.

결국 팀의 우승이 확정된 뒤 윤도현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많은 경기는 필요하지는 않았다.

9월 23일 삼성전에서 시즌 첫 출격한 윤도현은 사실상 데뷔전이었던 이 경기에서 3안타를 터뜨렸다. 24일에는 2개의 2루타로 2타점을 올렸다. 25일 4타석에서 침묵했지만 이후 3경기에서는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특히 28일 사직 롯데전에서 3타점을 수확한 그는 30일 NC와의 시즌 최종전에서는 프로 데뷔 홈런까지 기록했다.

2루와 3루, 유격수 자리에서 수비를 소화하기도 하는 등 윤도현은 '6경기'에서 내야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윤도현은 "계속 팀을 응원하고 있었다. 1위를 확정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2군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 2번 타순에서 선발로 시작한 것도 진짜 과분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윤도현은 매 경기, 매 타석을 간절하게 대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는 "매 타석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원래 초중고 야구 하면서 한 타석 못 치면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럴 때 결과가 좋았는데 프로 오니까 선배, 형들이 프로는 매일 경기가 있고 144경기를 하니까 1타석에 개이지 않고 하라고 했다"며 "그렇게 하니까 2군에서 쉽게 타석이 지나갔다. 1군 외서는 '다음 타석에서 치자'라는 생각보다 '왜 못 쳤지' 고민했더니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다. 물론 매일 이렇게 하면 힘들 수 있겠지만 나한테 남은 경기는 어차피 6경기였다. 1경기, 1타석 소중하게 생각해서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타석에서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윤도현은 "내 장점 중 하나가 과감한 주루플레이인데 코치님이 뭐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전혀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부상으로 고전했던 만큼 코치진도 노심 조사 윤도현을 지켜봤고, 결국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만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윤도현은 "올해 (슬라이딩을 하다가) 부상 당했을 때 3루타 코스였다. 그 상황에 멈출 수가 없었다. 후회는 되지만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뛰었을 것인데 대신 슬라이딩을 잘해야 했다.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상 관리'를 우선 숙제로 이야기했지만 윤도현은 더 과감한 플레이로 부상 트라우마를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 1위팀 선수로 댄 6경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윤도현은 "신인 때는 무관중으로 시범경기를 하고 수술하고 재활했다. 1군이 어떤 곳이지 몰랐다. 팬분들 응원 받으니까 어디 아프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정신이 잡혔다. 어디 크게 부러지지 않는 한 야구선수라면 당연히 참고 해야 한다. 찬호 형이 조심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친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조심은 해야겠지만 더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내가 많이 다쳐서 감독님, 코치님들도 다들 걱정 많이 하시는 데 이제 굉장히 건강하다. 앞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6경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며 "기록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과정은 좋지 못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더 기대된다"고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T, 사상 첫 와일드카드 '업셋' ... "LG 나와라"

### 두산에 2연승...22이닝 연속 무실점

KT 위즈가 마법처럼 준플레이오프(준 PO) 티켓을 차지했다.

KT 위즈가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벤자민의 7이닝 무실점 역투와 강백호의 결승타를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전날 1차전 대결에서 4-0 승리를 장식하면서 승부를 2차전으로 끌고 온 KT는 이번에는 '1점 차 승리를 완성하면서 준 PO행을 확정했다.

이날 승리로 KT는 KBO 첫 와일드카드 '업셋'을 완성했다.

2015년 정규리그 4위와 5위가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된 이후 5위 팀이 준 PO에 진출한 사례는 없었다.

KT는 지난 1일에는 SSG 랜더스와 '사상 첫 5위 결정전'까지 치르는 등 마법 같은 집주를 펼쳤다.

KT의 '외국인 원투펀치'가 역사를 만들었다. 1차전 선발로 나선던 윌리엄 쿠에바스가 6이닝 무실점 호투 속 9개의 탈삼진을 뽐내면서 두산을 압도했고, 웨스 벤자민은 2차전을 7이닝 3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두 선발과 함께 KT 불펜진도 2경기에서 단 하나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는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이면서 4위 두산을 꺾었다.

KT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22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도 만들었다.

2022년 KIA 타이거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던 KT는 이해 6회부터 이어온 무실점 행진을 22이닝으로 늘렸다. 종전 기록은 LG 트윈스의 14이닝이다.

철벽 마운드를 앞세운 KT는 5일부터 정규시즌 3위팀 LG와 잠실구장에서 준PO 1차전을 치른



KT의 강백호가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6회초 1타점 적시타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준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로 진행된다. 한편 '벼랑 끝 승부'가 펼쳐진 이날 잠실구장에

2만 3750명이 입장하면서 이를 연속 매진이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청호배 배구대회 보성서 5~6일 개최

### 42개 팀 900여명 참가

호남 대표 생활체육 배구대회인 '제56회 청호배 배구대회'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보성 별교스포츠편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청호배 배구대회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42개 팀, 900여 명의 광주·전남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하며 남녀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대회 개최식은 5일 오전 11시 별교스포츠편에서 치러진다.

대한민국 배구협회 생활체육 경기 규정에 따라 예선경기와 본선경기는 1·2세트 21점제, 3세트는 15점제가 적용된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준우승팀에게는 70만 원·3위팀에게는 50만 원이 주어지며, 8

강 진출팀에도 상금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56년간 이어져 온 남도 대표 배구 축제인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 전 조영호 사무총장이 지난 1968년 창설한 대회로 전 조 사무총장의 호(칭호)를 따 이름 지어졌다.

조영호 사무총장은 보성군 별교 출신으로, 국내 최초 세계배구연맹(FIVB) 국제심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프로배구연맹 총재 특보로 활동 중이다.

이탁우 청호배 배구위원회 회장은 "청호배 배구 대회는 배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배구의 매력을 느끼고, 지역 사회와 스포츠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장성 골든FC, 전남도지사기 동호인축구대회 여성부 우승

### 청년부 순천·장년부 목포 우승

2024년 전남도지사기 동호인축구대회에서 장성 여자축구동호인 선수단(이하 장성 골든FC)이 여성부 우승을 거머쥐었다.

전남 지역 축구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 승부를 겨룬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28일 고흥 박지성 축구장에서 여자부, 청년부, 장년부로 나누어 치러졌다.

구례와 해남을 차례로 제친 장성 골든FC는 결승에서 화순과 0-0으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기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2021년 창단한 장성 골든FC는 2024년 전남도의장기 대회 우승, 지난달 열린 제13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한마당 3위에 이어 이번 도지사기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유영빈 장성 골든FC 회장은 "회원들의 화합 덕

분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2025년 전국 대회에서도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청년부에서는 순천시가 우승팀이 됐다. 나주시가 준우승을 기록했고, 해남군과 무안군이 공동 3위에 올랐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장년부에서는 목포시가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시가 준우승, 해남군과 신안군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